

환경뉴스

環境界소식

全國 河川 수질환경기준 5등급으로 구분 水質에 영향 주는 공장건설·폐수배출시설立地규제

전국 1백 73개 수역의 등급이 확정됐다. 환경청은 새해부터 적용되는 전국 주요 수계별 수질 환경기준을 5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질 생활환경기준 1등급(BOD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1\text{mg}/\ell$ 이하) 적용을 받는 수역은 상수원 보호와 청정수역 보전을 고려한 한강수계의 팔당댐 상류등 74개 수역, 상수원 및 생활환경 보호를 고려한 2등급(BOD $3\text{mg}/\ell$) 수질은 66곳, 농업 및 공업용수 보호를 고려한 3등급(BOD $6\text{mg}/\ell$) 수역은 18곳, 환경보전에 영향이 적은 4등급(BOD $8\text{mg}/\ell$) 수역은 8곳, 5등급(BOD $10\text{mg}/\ell$) 수역은 6곳등으로 구분돼 철저한 수질관리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로 적용될 수역별 등급이 마련에 따라 지금까지 오염이 심해 무등급 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중랑천 하류·안양천하류·금호강 하류·금호강 하류·유등천등 6개 구간도 수역별 환경기준 설정 해당 대상에 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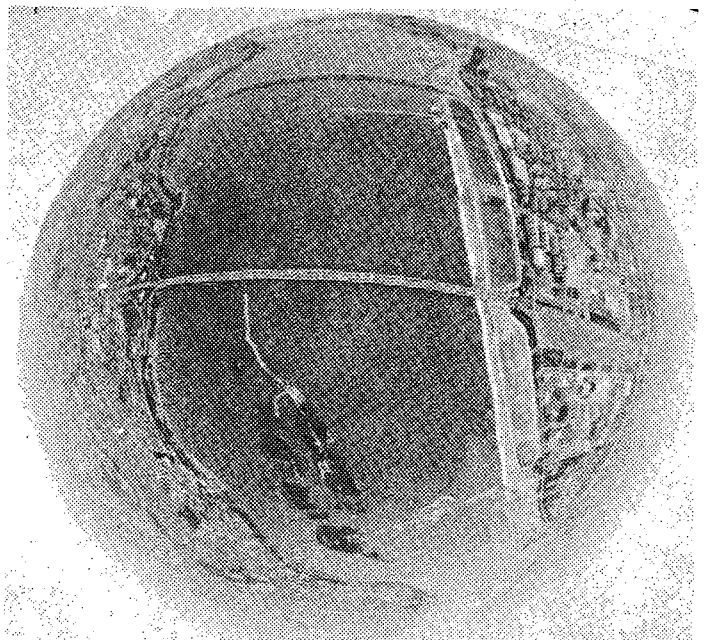
「83년 9월부터 전국 1백 15개 수역을 구분, 각 수역별利物목적에 맞는 목표수질 환경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 시

행해 왔던 것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確定하였다.

수역 구간이 긴 것은 조정했다. 또 수계·수역별 오염도 추세 변화를 보았다. 잠정적으로 시행해 오던 목표 수질과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하였으며 현재의 현황, 장래의 수질, 예측, 장래의 이수목적, 목표 수질 달성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질환경기준 등급을 새로정했다. 환경기준등급이 적용됨으로써 수계유역 이용자들은 이 지역의 수질은 얼마든지 알 수 있

고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건설부등 국가투자계획에서 우선 순위가 조정되며, 체계적인 수질환경행정이 펼쳐지게 된다」 환경청 이방훈수질국장의 말이다.

이번의 수역별 환경기준적용 등급설정은 의미가 크다. 이것은 전국의 공공 하천 및 호소의 수질목표치를 정해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수질보전의식을 키울 수 있고 또한 수질에 영



〈水系에 환경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이 수질을 얼마든지 맑고 깨끗히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漢江〉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신규개발 사업이나 공장신설을 억제하고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번 새로 설정된 수역별 환경기준을 강화된 곳이 많이 눈에 띈다. 한강본류가 흐르는 수역중 하나인 굴포천합류점부터 하구까지의 수역은 현재의 수질환경기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이것은 경기도 김포군 사우리양수장에서 농경지 1백 75ha에 농업용수를 쓰므로 농업용수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환경기준이 상향조정된 것. 또한 낙동강 본류 3지역인 금호강 합류점 전부터 회천합류점 전까지 지금까지의 4등급 수질에서 2등급으로 크게 강화되었는데 하류의 상수원수에 영향이 미처 급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수역명	환경기준
한강본류 1	1
송천	1
어천	1
지장천	1
석항천	3
평창강본류	1
평창강하류	2
옥동천	1
한강본류 2	2
제천천	3
한강본류 3	2
달천상류	1
달천하류	2

수역명	환경기준	수역명	환경기준
섬강상류	1	미천	1
섬강하류	2	내성천	1
원주천	4	영주서천	1
청미천	2	한천	1
북하천	2	영강	1
한강본류 4	1	병성천	1
혹천	1	위천	1
북한강상류	1	쌍계천	1
양구서천	1	낙동강본류 4	2
화천강	1	감천	2
북한강중류	2	낙동강본류 5	3
소양강	1	금호강상류	2
공지천	3	금호강중류	2
북한강하류	1	금호강하류	4
홍천강	1	회천	1
가평천	1	낙동강본류 6	2
조정천	2	황강	1
경안천	2	거창위천	1
한강본류 5	2	낙동강본류 7	2
한강본류 6	2	남강상류	1
한강본류 7	3	함양위천	1
중랑천상류	3	임천	1
중랑천하류	5	양천	1
한강본류 8	4	덕천강	1
안양천상류	3	남강중류	2
안양천하류	5	유천강	1
한강본류 9	4	남강하류	1
곡릉천	2	함안천	1
임진강	2	밀양강	2
한탄강	1	낙동강본류 8	2
영평천	2	양산천	2
신천	2	금강본류 1	1
문산천	2	무주남대천	1
낙동강본류 1	2	봉황천	1
황지천	3	영동천	2
철암천	3	초강상류	1
낙동강본류 2	1	초강하류	2
낙동강본류 3	2	보청천	1
반변천	1	금강본류 2	2
용전천	1	금강본류 3	3

수역명	환경기준	수역명	환경기준	수역명	환경기준
갑천상류	2	만경강본류 3	4	태화강본류 1	1
갑천하류	3	전주천상류	1	태화강본류 2	3
유등천상류	3	전주천하류	3	동천	2
유등천하류	5	삼정강본류	1	형산강본류 1	1
금강본류	4	만정강본류 4	5	형산강본류 2	2
미호천상류	2	안성천본류 1	2	영덕오십천본류	1
백곡천	2	안성천본류 2	3	삼척오십천본류1	1
보강천	2	진위천상류	2	삼척오십천본류2	2
병천	1	진위천하류	4	강릉남대천본류1	1
미호천하류	5	오산천	2	강릉남대천본류2	3
무심천	2	황구지천	3	양양남대천본류	1
조천	1	삼교천본류 1	2	간성북천	1
유구천	1	삼교천본류 2	3	왕피천	1
지천	1	무한천	2	영덕송천	1
금강본류 5	2	곡교천	4	회야강	1
금성천	2	동진강본류	2	광양서천	1
금강본류 6	5	정읍천	2	순천동천	2
논산천	2	원평천	2	이사천	1
노성천	2	교부천	2	웅천천	1
강경천	2	탐진강본류	2		
길산천	2				
영산강본류 1	1				
영산강본류 2	2				
영산강본류 3	4				
광주천	4				
영산강본류 4	2				
황룡강	2				
지석천	2				
고막원천	2				
합평천	2				
성진강본류 1	1				
오수천	1				
섬진강본류 2	1				
요성천	1				
동북천	1				
만경강본류 1	1				
만경강본류 2	2				
소천	1				

우리나라 國民 환경문제 대책에 불만 소음·진동이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은 환경오염이 덜된 지방의 중소도시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경오염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문제 대책에 불만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가 지난해 7~11월 전국의 1천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39.9%가 지방의 중소도시를 꼽았고, 그 다음이 농어촌(13.5%) 서울주변도시(13.9%)이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26.3%에 지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는 응답자중 31.1%가 소음 및 진동 15.4%가 쓰레기 13%가 자동차배출가스문제, 그리고 11%가 토양 및 농약오염문제를 들었다.

또한 5년전에 비해 지금의

환경상태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대로다」(23.8%), 「악화됐다」(26.7%)등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 사람이 50.5%로 압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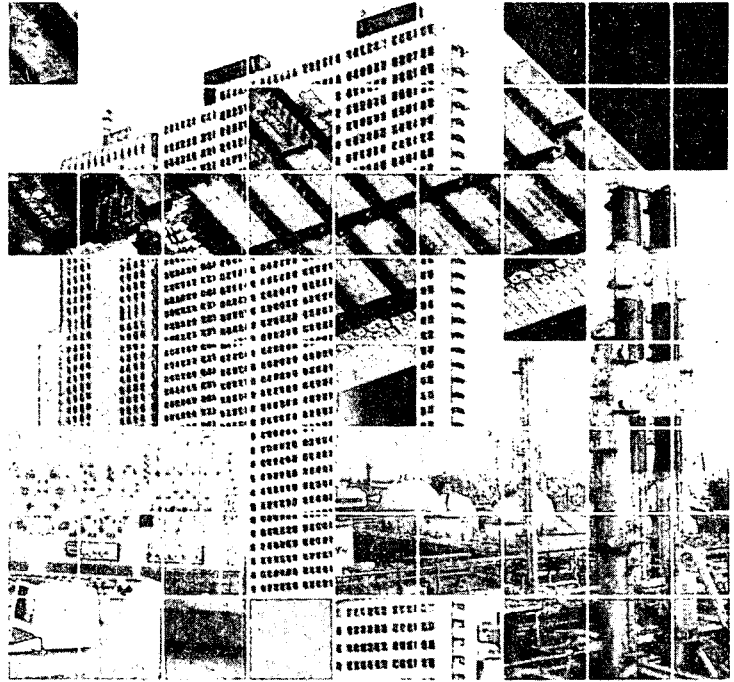
환경오염의 해를 받고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69.1%로 높았으며, 받고 있지 않다는 사람은 10.9%에 불과했다. 이는 5년전의 조사에서 「받고 있지 않다」가 73.9% 「피해를 받고 있다」가 18.2%로 나타났던 것과 완전히 뒤바뀐 결과. 그러나 농약오염이 염려되는 음식물을 5년전이나 지금이나 딸기등 과일류(36.6%)가 1위였고, 그 다음이 배추등 채소류(31.9%) 쌀등 곡물류(19.3%) 순이었다.

전체의 73.3%가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오염을 부채질할 주범은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이라 말했고, 가정배출오염(19%)과 농업 및 축산오염(7%)은 비교적 낮았다.

한편 가정 쓰레기를 버릴때 타는 것과 안타는것,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버린다는 응답은 26.6% 재 활용물질을 골라내고 버리는

사람은 11%였다.

등산이나 야외로 놀러갔을때 쓰레기를 주변 쓰레기 통에 버리는 사람(51.5%)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9.1%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광등 제조업체 근로자 만성수은중독

경기도내 S업체 WHO 기준치 20배 넘어

京畿道내의 한 중소기업인 형광등 제조업체 근로자 25명에 대해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혈중수은 농도를 측정해 결과 72%에 이르는 18명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정기준을 최고 20배나 넘는 만성수은중독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만성수은중독은 판명된 근로

자 18명중 6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손이 심하게 떨리고 온몸에 쥐가 나며 심한 경우 말을 더듬거나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는등 전형적인 수은중독환자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팀은 지난해 9월 京畿道 利川군 夫

鉢면 茂村리 소재의 S 조명공업주식회사 근로자 1명이 만성수은중독으로 진단된 것을 계기로 최근 이 회사근로자 1백 30명중 자발적으로 진단에 응한 25명에 대해 혈중 수은 농도를 측정해 결과 7할 이상이 만성수은중독환자임을 밝혀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팀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25명중 18명의 혈중 수은농도가 WHO 인정기준인 1ml

당 0.03 kg(1 kg은 1천분의1 g)을 최저 2배에서 최고 20 배나 초과했고 특히 이들중 4 명의 경우 우리나라 노동부의 직업병인정기준인 1 ml당 0.2

kg을 넘어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

이들 수은중독이 심한 근로자 6명은 성남시내 인하병원에 입원, 치료중(2명은 치료

후 퇴원)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근무를 계속, 적절한 치료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環境廳 特定産業폐기물감시 더욱 강화

전표제도 일반産廢면제 · 特定産廢업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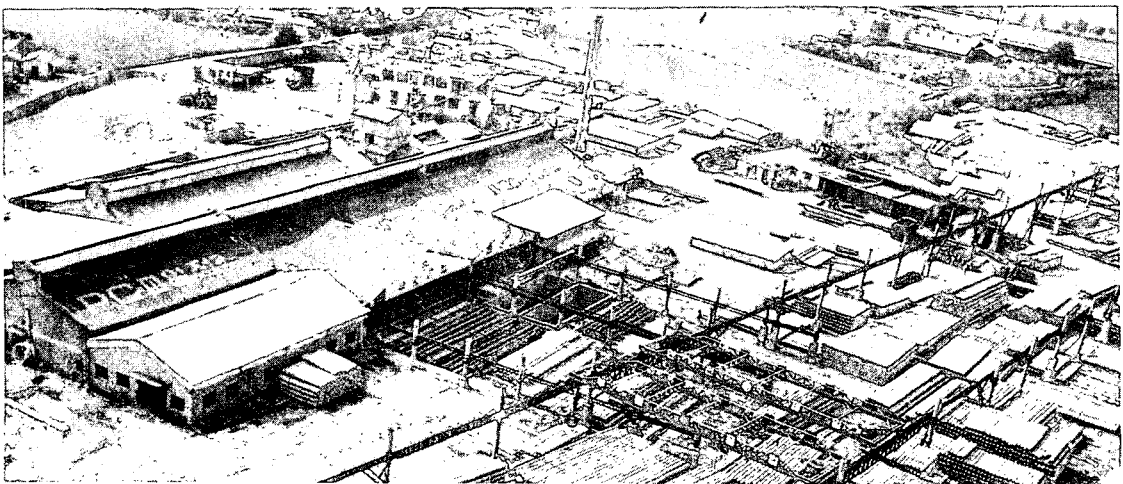
크롬 카드뮴 폐유 폐합성수지 등 특정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청은 1월 4일 산업폐기물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산업폐기물관리 복수 전표제도를 개선해 일반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반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전표발행을 면제해 주는 대신 특정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주요 관리업소는 전표발생대상을 1백개 업소에서 2백개 이상 업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표 발행을 면제받게된 일반 관리업소는 분

기별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해야하며, 필요시 확인 및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2백여개로 확대되는 주요 관리업소는 특정유해산업 폐기물을 연간 1백 t 이상, 폐유 및 폐합성수지를 연간 2백 t 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폐기물을 전량 이용하거나 자가 처리하는 업소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표제에 의해 추적 감시되는 주요 관리업소 2백여개소, 정기보고에 의한 감시체제로 관리되는 일반관리업소 약 1백개소 등 총 3백여개 업소가 집중 감시됨

으로써 전국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막고 제도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해온 복수전표제도는 지난해 11월말까지 4만 9천 4백 52장이 발행돼 4만 7천 9백 7장이 처리됨으로써 적정처리에 크게 기여 했다.

「평화의 댐 보고서」

「평화의 댐」 건설지원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鄭壽昌)는 댐 건설을 위한 성금모금의 시작에서부터 그 추진과정을 기록한 「평화의 댐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평화의 댐에 관한 사진 및 관계자료 등이 곁들여졌다.



팔당수원지, 북한강변 각종 시설건립

서울시민들 이의, 허가 억제 요구

서울등 수도권지역 상수도수원지인 八堂수원지상류 北漢江변에 대형 숙박시설 및 연수원 건립등의 움직임이 보이자 서울시민들이 이의 허가를 억제해 줄 것을 京畿道에 건의했다.

서울城東구 中谷동 중곡아파트 3동 205 朴東仁(51)등 주민 63명이 京畿道지사에게 낸 진정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K학원 차모 이사장이 京畿道 南楊州군 和道면 琴南리 618일대 북한 강변에 숙박시

설 및 연수원 건물신축이 가능한 곳인지를 京畿道에 서면질의를 통해 타진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수도권 상수도원인 八堂수원지 상류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4.5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신축허가를 해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K학원이 이 일대 4천여평에 연건평 1천5백평의 대형건물을 신축, 숙박시설겸연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대형시설물에서 나올

오물을 비롯, 목욕물이 북한강에 거쳐 한강물에 유입될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불쾌하다」면서 이같은 대형건물신축을 억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 지역에 특정인을 위한 신축사업을 승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사업도 승인해야 할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 서울시민의 젖줄인 北漢江이 오염, 수질이 악화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京畿道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忠南서해안 일대 생태계 변화 대규모 간척공사후 프랑크톤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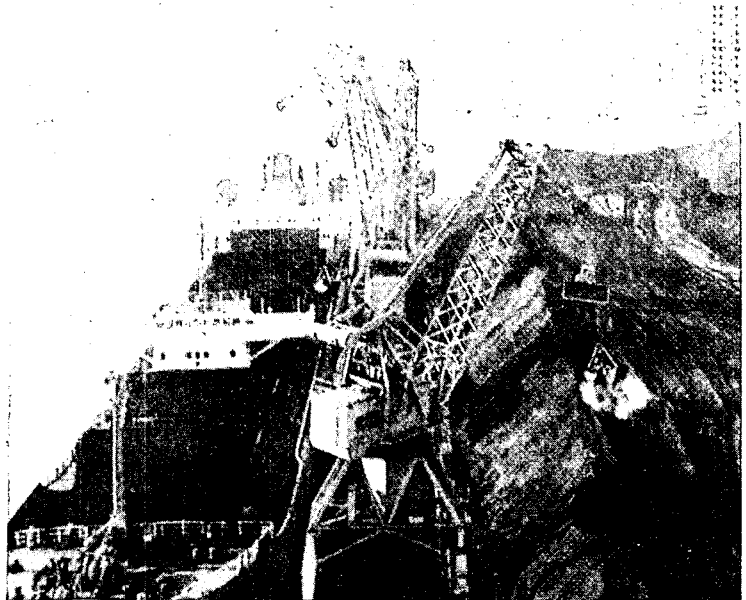
忠南 서해안의 대규모간척공사로 牙山灣 淺水灣 일대에서는 프랑크톤이 줄어 수산물의 생산량이 격감하는가 하면 종전에는 찾아 볼 수 없던 새조개가 대량으로 잡히는등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

忠南 서해안지역의 대규모 간척사업은 80년이전에 끝낸 牙山灣의 插橋川지구 5천1백10ha를 비롯, 81년 이후의 牙山灣 大湖지구 7천6백27ha 石門지구 3천7백40ha 淺水灣의 瑞山A, B지구 1만5천5백94ha 藍浦지구 1천9백10ha 등으로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들 공사로 83년 이후 각

해역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민물에서 바

다로 유입되는 영양염류가 줄어들고 특히 프랑크톤은 간척사업이 있기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淺水灣 연안 이 배란장소인 재우등 각종 어



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또 83년까지 이곳 연안어민들이 매년 3만 2천척씩 생산한 김도 3분의 1인 1만 4백

여책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瑞山 保寧 洪城지역 해안에서는 고막의 일종이며 고막보다 훨씬 크고 맛있는 새조개가 작

년부터 간척지제방 아래 바다에서 대량으로 잡혀 최근까지 2천여 t을 어획하는등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등장했다.

안양 난지 정화조 오니처리장 3월마무리 서울 시내 정화조 오니농축처리

안양천과 난지에 건설중인 2개소의 정화조 오니처리장이 오는 3월 전공정을 마무리하고 시운전에 들어간 뒤 7월부터 본격가동된다.

두정화조오니위생처리장이 완전 가동되면 시내 전역에서 쏟아낸 정화조의 오니를 협잡물과 토사를 분리 제거한 뒤 농축처리됨으로써 漢江 수질오염을 방지시키게 된다.

1월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 안양천 하수처리장부지내에 건설중인 안양천정화조오니처리장은 78억 5백만원을 들여 지난 86년 11월 착공토록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전설비 및 부대공사가 한창이며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덕은리 난지하수처리장부지

내에 건설중인 난지오니처리장도 86년 11월에 착공, 48억 8천 8백만원을 들여 현재 건설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내부 설비시설이 한창이다.

시는 현재 80%에 달하고 있는 두처리장의 공정을 앞당겨 2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끝내고 3월초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양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용산 성동 등대문 강동 강남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구 등 10개 구이며, 이곳에서 나온 오니(1일 처리용량 2천kl)를 기계처리하고 난지처리장은 종로 중구 서대문 도봉 성북 마포 은평구 등 7개 구의 오니(1일 처리용량 1천kl)를 위생처리하게 된다.

사·무·실·이·전
세광알미늄(주) <대표이사 유병헌>은 1월 4일을 기해 本社와 서울사무소를 개설했다. 이전한 本社와 서울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本社 :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51

TEL (0345)6-4853 ~ 6

TELEX. K26779

FAX (0345)6-4869

△ 서울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 1027-5

TEL 581-1421 ~ 3

TELEX. K26779

FAX 584-3027

동양환경개발(주) <대표이사 채우식>이 사세확장과 더불어 사무실을 이전했다.

지난 1월 4일을 기해 이전한 同社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87-9 (전화번호 및 테렉스등은 전과 동일)

소양호 인근 水面사용료 부과 어민측, 생계 막연 철회 요구

江原道 춘성 양구 인제군 등 3개 군내수면(昭陽湖) 어민 1백여명은 최근 자신들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호수에 대해 산업기지개발공사측이 수면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

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현재 昭陽湖에서의 어업종사자들은 대부분 지난 73년 10월 소양댐이 준공 담수되면서 집과 농토가 수몰, 이들 3개 군에 분산해

고기를 잡아 생활해 오고 있으나 지난 12월말 산업기지개발공사측이 갑자기 가구당 2만원씩 수면사용료를 부과, 납부하지 않으면 3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어업허가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한편에서 조성한 인근 春川댐과 衣岩댐 및 저수지

등은 하천법과 공유수면법이 적용되는 수면에서 20여년 동안 어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수면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호수어업은 댐 관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 4천~5천원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어민들의 영

세성을 감안, 사용료부과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韓國環境科學研究協議會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개최 예정

韓國環境科學研究協議會 <회장 홍순우>는 1988년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있을 정기총회에서는 '87년도 결산승인 및 '88년도 사업계획 예산승인이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될 특별강연회는 △환경정책 기본법의 제정필요성과 문제점(具然昌, 경희대법대학장·本報편집위원) △2000년대를 향한 환경연구의 수요와 연구인력대책(申應培, 한국과학기술원환경공학연구실장)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방지시설업 등록

합자회사인 세화산업사 <대표 원영상>는 1월 18일 대기오염방지시설업체 등록을 마쳤다.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2-29

(주)진광환경<대표이사 송용출>도 1월 19일자로 대기오염방지시설업체 등록을 필했다.

소재지 : 인천시 남구 간석 1동 339-4

환경오염현장 市民신고 전화번호 안내

여러분 주변에서 하천에 오물을 버린다거나 쓰레기, 기름 등이 흘러가고 있을 때 또는, 하천오염 및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다음 전화로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한 경 청 : 422-7623 (서울)
 부산 환경지청 : 334-7606, 332-7607~8
 대구 환경지청 : 93-7652·8176
 광주 환경지청 : 33-6890, 355-2186
 대전 환경지청 : 524-4711~3
 원주 환경지청 : 44-3305
 광주 환경지청 : 23-3171
 제주 출장소 : 23-3171
 서울시청 환경과 : 731-6406~8

서울시청 치수과 : 362-3817~9
 한강관리사업본부 : 796-2236~8
 한강관리사업소 관리초소 : 망원지구 : 333-4125
 여의도지구 : 783-7716
 이촌지구 : 796-2236
 반포지구 : 591-5943
 잠실지구 : 417-1348
 광나루지구 : 485-3091
 잠원지구 : 534-3263

※ 기타 지역의 경우 市는 각 市·區廳 환경과 郡은 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